카드업계 채용 '오리무중' 삼성카드만 신입 뽑는다

올해 하반기 정기 채용일정 '고심'
삼성카드, 세부적 내용은 미정
디지털 인력, 수시채용 통해 보충
비대면 채용 등 다각도로 검토

코로나19 여파로 카드업계의 신입사원 채원이 미뤄지고 있다. /픽스타

"카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 대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보니 채용 관련해서도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A카드 관계자)

카드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 공개채용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7개 신한·KB국민·우리·현대·하나·롯데·비씨카드는 하반기 정기 신입공채 여부와 규모,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삼성카드만 유일하게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채용 공고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삼성그룹에서 이달 중순부터 채용을 예고하면서 삼성카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9월초부터는 채용절차에 들어갔던 것과 비교하면 일정이 다소 뒤로 밀린 셈이다. 지난해 삼성카드는 하반기 공채를 통해 경영지원, 데이터분석, 정보기술(IT), 제휴영업 부문에서 40여명을 채용한 바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하반기 채용 진행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채용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 대부분의 카드사는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이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공채 진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마케팅비용을 줄이면서 지출을 줄이는 만큼 공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언택트(비대면) 금융 거래의 활성화로 디지털 인력과 같이 수급이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부터 웹서비스 개발, 모바일앱 개발, 데이터 사이언스 등 IT 관련 분야 인력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 4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기획관리 직군 인턴을 모집했다. 지난달 중순 인턴 기간은 끝났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씨카드 역시 지난 7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리스크 모델링 분야에서 채용전환형 인턴을 모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불안하지만 결국 인력 보충은 필요하다"며 "비대면 채용, 수시 채용 등 다각도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로지올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이명구 부행장(가운데), 로지올 최종진 대표(왼쪽), 마이앨리 김우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소상공인 위한 '퀵' 정산 서비스

매출 발생 다음날 대금 회수
전용통장 통한 무담보 서비스

신한은행이 로지올, 마이앨리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및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퀵(Quick) 정산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퀵 정산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20일 후에 받을 수 있는 매출대금을 매출 발생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대금회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특히 기존에 선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아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무담보로 '신한퀵정산 전용통장'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었다. 또 본 서비스 가입 시 가맹점의 매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마이앨리의 매출 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비스 신청도 간단하다.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비즈(SOL Biz) 앱에서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생각대로' 대리점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의 업무 편의성도 크게 개선시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일 "이번 서비스가 영세 소상공인의 단기 자금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휴기업과 함께 가맹점 매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골목상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매각 이행 점검

오늘부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처분·전입 약정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자가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미(未)이행자를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의 경우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포함) 정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출 관련 시한이 1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미 각 은행은 의무 약정 이행 여부를 거의 다 파악한 상태"라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 1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정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 회수나 제한 등 제재도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IBK기업銀, 추석 특별지원자금 8조 지원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에 혜택

IBK기업은행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신규대출 3조원, 만기연장 5조원 등 총 8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銀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출시

보증서 하나로 다수 수출채권 매입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7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보증서 담보 상품이다.

특히 이번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입자 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수출기업은 다수 수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채권 매입시 보증서 하나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보증서와 관련한 보증료 지원 및 환가료 추가 감면을 통한 금융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수출신용보증 신청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납부 보증료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동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환가료도 0.5% 추가 감면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한도 책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 신청과 동시에 쉽게 보증한도를 예측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행안부와 이용 활성화 협약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전자문서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신한 쏠(SOL)에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은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원 서류의 신청 및 제출 전 과정에서 전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전자증명서는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으며,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안상미 기자